

# 제16차 ASTAP 회의



김광수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녹색기술팀장

진병문 | TTA 표준화본부장

## 1. 머리말

APT(Asia-Pacific Telecommunity, 아태진기통신협의체)는 1979년 UN 아태 경제사회이사회(ESCAP)의 결의에 따라 설립된 정보통신 관련 지역기구로서 역내 국가 간 정보통신망 계획 및 상호조정, 회원국에게 공동 이익이 되는 정보통신기술 개발, 정보통신 관련 정보 및 전문가의 교류촉진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ASTAP(APT Standardization Program) 포럼은 APT의 8개 작업프로그램(Work Program)의 하나로 표준화 관련 아태지역 차원의 협력 활동, 역내 상·하향식 표준화의 조화로운 추진을 목적으로 1998년에 설립된 표준화 관련 협의체이다.

지난 2009년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중국 마카오에서 개최된 제16차 ASTAP 회의는 23개 회원국, 회원사 등에서 총 144명이 참석했으며, 우리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 ETRI, KT, TTA 등에서 관련 전문가 17명이 참가했다.

이번 16차 회의는 2008년 12월에 개최되었던 APT 관리 위원회에서 ASTAP과 APT의 또 하나의 프로그램인 연구반(Study Group)의 연계 개최를 통해 통합 가능성을 논의 하라는 결정에 따라 지난 15차 회의(2009.3)에 이어 제

30차 연구반 회의(8.28)와 연계하여 개최되었으며 두 프로그램의 통합방안 및 기후변화작업반 신설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었다. 이밖에 NGN, 정보보호 등 주요 기술 분야와 정보통신접근성, 작업방법, 규제이슈 등에 대한 각국의 표준화활동이 논의되었다. 이하에서는 금번 16차 ASTAP 회의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 2. 주요 결과

### 2.1 기후변화작업반 신설

이번 ASTAP 회의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아태지역 국가 간 정보교환 및 표준협력을 위한 기후변화작업반(ICTs & Climate Change WG)이 신설되었고, 라포처에는 전파연구소의 정삼영 연구관이 선임되었다. 한국은 전 세계적 인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아태지역 국가 간 표준협력과 지역차원에서의 국제표준화활동 대응을 위해 ASTAP 산하에 기후변화작업반 신설을 제안하는 기고서를 제출했고, 동 기고서를 기반으로 작업반의 활동범위와 목적 등을 논의하여 폐막총회에서 작업반 신설이 최종 승인되었다.

또한, 이번 기후변화작업반 신설은 일본의 견제와 반

대 속에서 이루어낸 성과였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 일본은 ITU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기후변화 논의의 중심에 있으며 따라서 이번 한국의 제안에 대해 아태지역에서의 주도권 상실을 염려한 타인지 대표단 전체 차원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일본은 ICT와 기후변화 표준화 이슈는 이제 막 ITU에서 논의하기 시작한 것으로 APT에서 다루기에는 미성숙된 분야이고, ITU 표준화 활동과 중복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뿐더러 일본의 경우 ITU 등 다른 표준화기구에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어 APT에 인적자원을 투입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어 동 작업반 설립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 동 작업반은 아태지역 회원국의 이해를 반영한 활동에 집중할 예정으로 ITU 활동과 중복이 되지 않을 것이며, 일본이 문제 제기한 작업반 ToR도 회원국 의견을 받아 수정 가능함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일본을 설득했다. 한편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해 히말라야의 빙하가 녹고 있는 네팔, 해수면의 상승으로 국토 침수의 위기에 직면한 몰디브 대표단의 지지를 유도하고, 태국, 이란 등 영향력 있는 개도국을 논의에 끌어들이므로써 작업반 신설을 위한 지지기반을 마련했다.

결국 일본은 기후변화작업반 신설에 동의했고, 일본이 제안한 ToR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폐막총회시 동 작업반 신설이 최종 승인되었고, 라포치로는 전파연구소 정삼영 연구관, 코라포치로는 네팔, 태국, 이란이 각각 선임되었다.

## 2.2 ASTAP과 SG 통합 조직 및 ToR 논의

APT의 연구반은 그동안 회원국(사)의 참여저조로 수차례 폐지가 제안된 바 있으며, 2008년 12월에 개최된 APT 관리위원회 회의 시 APT 사무국에서 APT 작업프로그램의 구조조정 차원으로 ASTAP과 SG 두 프로그

램의 통합을 제안했다. 이란(SG 의장국)과 인도네시아가 개도국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 SG의 유지가 필요함을 지적했으나, 다른 회원국들 모두는 SG와 ASTAP 간의 통합을 지지했다. 이에 따라 관리위원회는 2009년도에 2개 회의의 연계 개최를 통해 통합 가능성을 논의하고, 제33차 관리위원회에 관련 결과를 보고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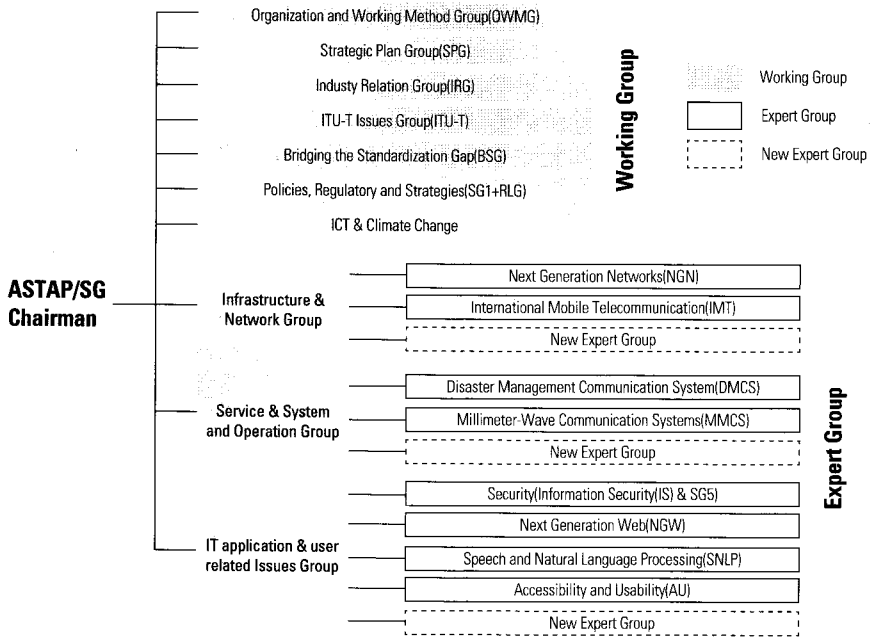
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난 3월에 연계 개최된 ASTAP과 SG 회의에서 통합조직을 논의하기 위한 Adhoc 그룹이 결성되었고, 그동안 Email 논의를 통해 마련된 통합조직 및 ToR 초안이 이번 회의에서 보고되었다. 한국은 Adhoc 그룹 코라포치국으로서 그동안 Email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통합 조직 및 ToR 초안 작성에 기틀을 마련했고, ToR 초안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을 추가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고서를 제출하여 논의를 이끌었다.

한국은 제안된 ToR 초안에 명시된 "Solution" 등의 문구가 ASTAP(통합조직)의 활동범위를 넘어서고 있음을 지적하며 ToR에서 삭제할 것을 제안했으나, Adhoc 그룹 라포치(일본)는 동 사항이 SG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한국의 제안대로 ToR을 수정할 경우 SG 활동이 배제될 수 있음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기존 SG ToR에 명시된 주요 활동을 통합조직 ToR에 추가 반영하고 "Solution" 등의 부적절한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폐막총회시 최종 승인되었다.

또한, 통합조직이 기존 SG 활동을 보다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전문가그룹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통합 조직안을 수정한 후 최종 승인되었다.

## 2.3 기타

한국은 ASTAP 활동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Work Item 도입 및 작업반 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그림 1] ASTAP/SG 통합 조직안

을 제안했고, 동 제안이 ASTAP 산하 작업반 의견수렴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얻음에 따라 ASTAP/SG 통합에 대한 관리위원회 승인 이후 통합 조직의 작업방법 개발 시 반영키로 결정되었다. 또한, 산업계의 ASTAP 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이번 회의부터 시도된 Industry Workshop이 참가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며, 차기 워크숍 주제로는 일본이 제안한 IPTV와 IRT EG 및 NGW EG에서 제안한 클라우드 컴퓨팅을 선정하고 프로그램은 산업계연계그룹(의장 : KT 문호건 부장) 주도 하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 3. 맺음말

ASTAP이 설립되고 10여 년이 지났으며, 이제 ASTAP은 SG와의 통합에 따른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 ASTAP이 대표적인 지역표준화기구

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APT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ASTAP 국내준비반을 새롭게 정비해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동 대응체계에 APT 회원사를 포함한 산업계가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ASTAP 전문가그룹의 성과가 곧 ASTAP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만큼 각 전문가그룹이 APT 권고를 포함한 기술문서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국내전문가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TTA